

合 研



合 研

卷頭辭

마지막 비대면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교장 이 일 규 올림

目次

I	II	III	IV	V
·	·	·	·	·
소식과 일정	재학생 동향	행사와 시설	규정과 약속	교류회 발표
—	—	—	—	—
4	8	20	24	36

I

소식과 일정

2020-2학기 (20. 9월 ~ 21. 2월)

이혜민 선생님(서양중세사) 사학과 부임 — 9월

조태섭 선생님 박물관장 연임(~2022. 8) — 9월

『학림』 46 — 9월

특집: 한국 농업사 연구사 동향과 과제 - 송암 김용섭 교수 농업사 완간 기념

백승철·최윤오, 「총론: 송암 김용섭 교수의 농업사 연구와 저술」

이인재, 「한국 고·중세 결부제의 전개과정」

최윤오, 「조선후기 토지공개념의 유형과 그 성격」

왕현중, 「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사와 토지소유권 논쟁」

연구동향

조인희, 「정유재란사(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특별기고

이용조, 「'박물관에서 구석기와 함께 한' 나의 50년」

김용섭 선생님 별세 — 10월 20일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KCI 등재지 선정 — 11월 2일

박물관, 파른본 삼국유사 학술강좌 — 11~12월

파른 손보기 10주기 추모행사

강사: 조경철 객원교수 / 시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제2회 ‘위당 정인보 상’ 시상 — 12월 1일

학술·연구부문: 故 파른 손보기 교수

사회공헌부문: 김민수 부민양행 대표

제12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 12월 17일

주제: <파른과 한국 선사고고학>

일시: 2020. 12. 17. (목), 14:00 ~

장소: 연세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아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

발표 [사회: 서인선(연세대 박물관)]

14:30 ~ 14:50 발표 1 ... 「파른 손보기의 고고학 연대기」

발표: 조태섭 (연세대)

14:50 ~ 15:10 발표 2 ... 「한국의 구석기시대 연구와 파른 손보기」

발표: 공수진 (세종대)

15:30 ~ 15:50 발표 3 ... 「한국의 신석기시대 연구와 파른 손보기」

발표: 신숙정 (한강문화재연구원)

15:50 ~ 16:10 발표 4 ...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와 파른 손보기」

발표: 하문식 (연세대)

16:10 ~ 16:30 발표 5 ... 「연세대 박물관과 파른 손보기」

발표: 윤현진 (연세대 박물관)

합동연구실 작은방 이사: 외513 → 외518 — 1월 26일

소식과 일정

2021-1학기 (21. 3월 ~)

주요 학사 일정

3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포탈 입력
조교 배정
학부 답사 (단체 미 실시 예정)

4월

학부 중간시험
학위논문 예비심사

5월

대학원 신입학 서류·면접 전형

6월

제13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학부 기말시험
학위논문 본심사

7월

자격시험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

8월

대학원생 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 전공)
학위수여식

학과장

조태섭 선생님

2019. 9. 1. ~ 2021. 8. 31.

전공 주임

한국사 · 하일식 선생님
동양사 · 박경석 선생님
서양사 · 이재원 선생님

연구년(안식년)

설혜심 선생님 (2021-1학기)

학과 사무실 조교

이일규, 한국고대사 박사과정 (조교장)
허혜주, 한국중세사 I 석사과정
손명락, 일본근현대사 석사과정
구지윤, 서양(영국)사 석사과정

합동연구실 총무

박좌진, 한국현대사 석사과정

대학원 개설과목

한국사

김성보 선생님, 한국현대사의주요문제1
도현철 선생님, 한국중세의사회구조 I
이기훈 선생님, 한국근대사론1
조태섭 선생님, 동물고고학과화석환경학
최윤오 선생님, 한국중세사의제문제III
하문식 선생님, 선사시대무덤연구
하일식 선생님, 한국고대사론

동양사

박경석 선생님, 현대중국론
임성모 선생님, 동아시아에서 지식 정보 매체
차혜원 선생님, 동아시아사연구와자료

서양사

이재원 선생님, 역사와지역
이혜민 선생님, 중세유럽의제문제1
전수연 선생님, 사료강독과해석

II

재학생 동향 졸업과 입학

졸업 — 2021년 2월

석사

박지효, 「정선 매둔 동굴유적의 설치류 화석 연구」

조민영, 「근대 재봉틀의 보급과 생활경제의 변화」

최용준, 「1930년대 초반 조선공산당 함북도부의 당재건운동」

허성호, 「식민지 조선의 올림픽 민족주의 연구」

안광희, 「전두환 정부 시기(1980~1987) 부랑인 문제의 사회복지정책 편입과 사회정화운동」

FRETWELL JAMES ANDREW, 「걸프전쟁이 미국의 북한 핵문제 인식에 미친 영향

- 미국 언론의 논조 분석을 중심으로 -」

장 월, 「壬辰戰爭 초기 明軍의 보수와 포상문제 : 銀 지급을 중심으로」

한만휘, 「明代 兩廣交界의 군사 현안과 兩廣總督制의 성립」

신충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2007년 9월 미 의회 청문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

유현정, 『近代 上海의 住居 問題와 都市 空間 再編』

입학 — 2021년 3월

한국사

이창원, 고고학 박사과정
석지훈, 근대사 박사과정
정윤영, 현대사 박사과정
정시형, 고고학 석사과정
이서영, 고고학 석사과정
김영운, 중세사Ⅱ 석사과정
이영조, 근대사 석사과정
박 란, 근대사 석사과정
김재형, 현대사 석사과정
서준호, 현대사 석사과정

동양사

함승연, 중국근세사 박사과정
ZHOU SHIYING,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조준희,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서양사

박한결, 서양사 석사과정
정호원, 서양사 석사과정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9월 ~ 2021년 2월

고고학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박지효

입학 · <석사> 정시형 이서영 <박사> 이창원

전공생 현황 (2021-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서인선 정봉구 최경용 전소영 김소영 권수진 홍성수

수업학기 · 이상규 이창원

석사 논문학기 · 김길수 김현진

수업학기 · 이건웅 이태호 최민정 이민규 여수임 송정섭 정시형 이서영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전소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의 성과와 의미 - 최근 사업을 중심으로」

<제63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상의 갈등과 통합'> (2020. 10. 31.)

서인선, 「구석기시대 돌감 이용 전략의 다양성 - 임진-한탄강 유역의 구석기유적을 중심으로」

<제44회 한국고고학대회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 (2020. 11. 6.)

김우락 · 이은미 · 최민정, 「연천 노곡리 구석기유적」

<2020년 한국구석기학회 정기 학술대회 '구석기연구와 자연과학분석'> (2020. 11. 21.)

한국고대사

졸업과 입학

없음

(2021-1 기준) 전공생 현황

이유진 남혜민 이일규 · 박사 논문학기

백길남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전공생 세미나: 논문 구상·아이디어 발제 및 토론 (2019. 3. ~, 격월)

논문 원고 검토 등 (2020. 9. ~, 수시)

학술 활동

이일규 · 남혜민, 「태안사 적인선사비의 이수(螭首)와 ‘비말(碑末)’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2020. 9.)

남혜민, 「변한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안야국」

<제12회 아라가야 학술심포지엄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2020. 12. 11.)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이어서)

한국중세사 I

졸업과 입학

없음

전공생 현황 (2021-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최민규 이상민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영

수업학기 · 양강(YANG KANG) 허혜주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이상민, 「명사 예겸의 조선 사행과 두 개의 교화 서사」

〈한국역사연구회 중세국제관계사연구반 콜로키움〉 (2020. 9. 26.)

이상민, 「세종~세조대 언해 불전의 편찬과 교화」

〈연세대 국학연구원 동아시아 고전연구소 발표회 '조선 초기의 의례음악과 교화'〉 (2020. 12. 16.)

이상민, 「15세기 지방 지식인층의 활용과 평민(平民) 교화」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 12.)

한국중세사 II

졸업과 입학

〈석사〉 김영운 · 입학

(2021-1 기준) 전공생 현황

홍해뜸 조인희 김태홍 정진혁 · 박사 논문학기

이재빈 단백혜(DUAN BAIHUI) · 수업학기

김미승 강진주 장영민 박혜림 히토미아오이(HITOMI AOI) · 석사 논문학기

김영운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조인희, 「정유재란사(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학림』 46, 연세사학연구회 (2020. 9.)

조인희 · 최윤오, 「임진왜란기(壬辰倭亂期) 분조(分期) 구성원의 행적에 관한 고찰」

『역사와 실학』 73, 역사실학회 (2020. 11.)

그 밖의 소식

김미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2020. 8~)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이어서)

한국근대사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허성호 조민영 최용준

입학 · <석사> 이영조 박란 <박사> 석지훈

전공생 현황 (2021-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정경민 노상균 김호걸 이정윤

수업학기 · 김나라 장윤이 석지훈

석사 논문학기 · 이정용 이규연

수업학기 · 김예림 이기선 김해인 이영조 박란

학석 연계과정 · 김홍준

세미나 운영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일본어 강독 수업 (2021. 2. ~)

학술 활동

정경민, 「정약용의 재원확보구상과 관료 및 민의 역할」

『역사와 실학』 72, 역사실학회 (2020. 8.)

최용준, 「1930년대 초반 조선공산당 함북도부의 당재건운동」

김홍준, 「대한제국기 한일 간 망명자 문제- 정치외교적 역동성을 중심으로」

허성호, 「식민지 조선의 올림픽 민족주의 연구: 제11회 베를린, 제12회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김예림, 「<가정고문>으로 본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 운영과 독자」

조민영, 「한말 일제하 재봉틀의 보급과 활용」

<2020 상해외국어대학교-연세대학교 학술교류회> (2020. 12. 26.)

한국현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안광획 제임스(FRETWELL JAMES ANDREW) · 졸업

<석사> 김재형 서준호 <박사> 정윤영 · 입학

(2021-1 기준) 전공생 현황

김은정 김대현 이봉규 김세림 이준희 정다혜 김지훈 박은영 · 박사 논문학기

정윤영 · 수업학기

송용욱 박좌진 · 석사 논문학기

천오성 김보람 성건호 고낙일 김재형 서준호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박사학위논문준비 세미나 (박사생, 매달)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학술 활동

정윤영,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기회: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 1964~1969」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2020. 10.)

김대현, 「1980-90년대 게이 하위문화와 대안가족의 구성」

<한국구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경계 넘기 마이내리티 구술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2020. 10. 24.)

김지훈, 「유엔군사령부(UNC)의 한국군. 미군 정치훈련 제도화」

<제13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학술발표> (2020. 11. 5. ~ 7.)

김지훈, 「1960년대 남성 노동자의 병역 문제」

이봉규, 「박정희 정권기 노사관계론의 동향과 '노사협조」

<역사문제연구소 전태일 50주기 기념 학술회의 '전태일과 그의 시대' 1-2부> (2020. 11. 13. ~ 14.)

김대현, 「1950~60년대 '요보호'의 재구성고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전개」

박은영, 「1960년대 장애인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살 길」

정다혜, 「1970년대 의료 소외 지역의 보건의료 실험 - 거제 지역사회의학 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회의 " '문제적' 주체와 지역의 경험으로 쓰는 한국현대사회사"> (2020. 11. 18.)

김대현, 「게이와 페미니즘」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12.)

김대현,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79,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 (2020. 12.)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이어서)

중국근세사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장월 한만휘

입학 · <박사> 함승연

학석연계 · 박소현

전공생 현황 (2021-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남민구 박찬근

수업학기 · 함승연

석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김진송 이영기

학석 연계과정 · 박소현

세미나 운영

중국근세사료 강독연습회 (21. 1. 15. ~ 2. 19.)

중국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박사〉 유현정 · 졸업

〈석사〉 ZHOU SHIYING 조준희 · 입학

(2021-1 기준) 전공생 현황

지관순 김민서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심민보 양청청(YANG QINGQING) 방수미 양가림(JIALIN LIANG)

이신통(LI XINTONG) ZHOU SHIYING 조준희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중국현대사 스터디 (21. 1. 26 ~ 2. 23.)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9월 ~ 2021년 2월 (이어서)

일본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없음

전공생 현황 (2021-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윤정환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경 김보람 손효지

수업학기 · 손명락

학석 연계과정 · 전해현

서양사

졸업과 입학

〈석사〉 신충의 · 졸업

〈석사〉 박한결 정호원 · 입학

(2021-1 기준) 전공생 현황

석영달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전유한 고혜진 박서현 · 석사 논문학기

전장원 구지윤 이창민 박한결 정호원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석영달, 「19세기 후반 영국 해군 지휘체계 내부의 '불편한' 진실

- 1893년 빅토리아 호와 캠퍼다운 호 충돌 사건의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12.)

III

행사와 시설

주요 행사 소개

신년하례식

1월. 대개 첫째 주. 교내 알렌관에서.
선생님들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이 모이는 자리.
다과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듣는 자리.
한 해 학과와 동문의 동향, 졸업생과 신입생을 소개.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6월과 12월.
『학림』을 발간하는 연세사학연구회의 정기 발표회.
사학과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회 · 학술사업 > 연세사학연구회
(https://history.yonsei.ac.kr/histroy/05_hakrim/hakrim_intro.do) 혹은,
JAMS의 연세사학연구회 페이지 (<https://hakrim.jams.or.kr>) 참조.

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전공)

8월과 2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사 전공생이 학위논문을 발표하는 자리.
발표 후 선생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동료 대학원생과도 질의응답.
한국사전공의 석·박사과정생이 발표하나, 발표회 참관은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

사학인의 밤

2학기 중. 대개 10월.

대학원생 행사는 아니나, 사학과 선생님들과 동문 및 학부생들이 모이는 자리.
주로 사회 각계의 동문 졸업생을 초대하여, 해당 진로에 관심있는 학부생을 연결해주는 행사.
이로 인해 '각계'의 하나로서 대학원생이 참여하기도 함.
사학과 학부 학생회가 주관.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아래 합동연구실 총회와 함께 개최.
3~4인의 발표자가 논문 습작 혹은 수업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자세한 내용은 회보 V장 참고.

합동연구실 총회

8월과 2월.
합동연구실 이용자들의 정기 회의.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의 관련 내용(본 책자 30쪽)을 참고.

행사와 시설

주요 시설 소개

사학과 사무실

주소 · 홈페이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519호
<https://history.yonsei.ac.kr>

연락처

02-2123-2370
yhisto@yonsei.ac.kr

근무 시간

평일 10:00 ~ 12:00, 13:30 ~ 17:00 (단, 방학에는 15:00까지)

사학과 대학원 세미나실

위치

외솔관 627-1호

대관 방법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외솔관 627-1호 세미나실 대관 클릭**
대학원 수업 및 이미 신청되어 있는 행사 날짜·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겹치지 않으면 과 사무실에 방문 혹은 연락하여 신청
(아쉽게도, 전산상으로 자동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과 합동연구실

위치

큰 방: 외솔관 517호

작은방: 외솔관 518호

이용에 당부드리는 점

합연실 내규와 세칙을 잘 읽어주세요.

합연실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 잠시일지라도 반드시 도어락을 걸어주세요.

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우, 불과 냉·난방을 꼭 끄고,

[※중요] 쓰레기통을 복도 끝 합연실 큰방 문 앞으로 꺼내 놓아 주세요.

합연실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내역을 기록해 주세요.

합연실 도서는 공용이므로, 잡지 등을 이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두어 주세요.

상임석 신청 방법

매 학기 방학마다, 합연실 총무가 상임석 신청 공지를 띄웁니다.

공지 확인은,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합동연구실 상임석 신청 클릭

〈합동연구실 이용〉 게시판의 신청 공지 확인하여 댓글로 신청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연세포탈의 ID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VI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1. 전공분류

전공을 한국사전공,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

2. 입시

가. 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

나.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전형

1) 서류심사

제출서류 : ① 학위논문 ② 기타 연구성과물 ③ 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

심사기준 : [석사]

학업계획서(*1) 70점 / 대학성적(*2) 70점 / 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3) 60점
- 합계 200점

*1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취 평가

*2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 ② 강독·특강·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

*3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

[박사]

학업계획서 및 석사학위논문(*1) 7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2) 70점
/ 연구성과, 학회활동 및 어학·특수강좌 이수경력 60점 - 합계 200점

*1 : 학업계획서 30점, 석사학위논문 40점

*2 :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40점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20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0점 /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 어학능력(*1) 20점 /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2) 20점 - 합계 100점

*1 :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

*2 :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

3. 과정이수

가. 석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 4)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중 최소 36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삭제>(2015년 8월 개정)
- 4) 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발표실적이 2편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3. 과정이수 (이어서)

다. 석·박사 통합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3-나)과 동일하다.

4.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

가. 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전공 : ① 한국고대사 ② 한국중세사1(統一新羅·高麗) ③ 한국중세사2(朝鮮)
④ 한국근현대사 ⑤ 한국사회경제사 ⑥ 한국정치사 ⑦ 한국사상사 ⑧ 대외관계사
- 2) 동양사전공 : ① 중국고중세사 ② 중국근세사 ③ 중국근현대사 ④ 일본고중세사
⑤ 일본근현대사 ⑥ 중앙아시아사 ⑦ 인도·동남아시아사 ⑧ 서아시아사
- 3) 서양사전공 : ① 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 중세유럽사 ③ 근대영국사 ④ 근대프랑스사
⑤ 근대독일사 ⑥ 미국사 ⑦ 동유럽·러시아사 ⑧ 남유럽사 ⑨ 북유럽사

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외국어(영어)

한국사 : TOEFL(PBT 500점, IBT 60점, CBT 170점 이상), TOEIC 610점 이상, TEPS 485점 이상

동양사 : TOEFL(PBT 530점, IBT 71점, CBT 197점 이상), TOEIC 640점 이상, TEPS 515점 이상

서양사 : TOEFL(PBT 550점, IBT 79점, CBT 213점 이상), TOEIC 685점 이상, TEPS 560점 이상

2) 제2외국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학과 자체 출제)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한문포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석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박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2) 동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② 주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박사과정 : ① 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 ② 주전공영역 일반 ③ 전공인접영역

3)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역사의 이론 ② 서양사 일반 ③ 전공영역 일반

박사과정 : ① 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 ② 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4)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6. 논문작성 및 심사

- 가.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나.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이수,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다.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라.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
- 마.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 9월)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 1) 한국사 전공 학생이 예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 말(6월, 12월 말)에 공개발표를 해야만 한다.
 - 2)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바.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사.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아.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준용원칙

가.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

나.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

다.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개괄

합동연구실은 외솔관 517호(이하 ‘큰방’)와 518호(이하 ‘작은방’)를 아울러 말한다.
연구실의 도서와 설비는 학부·대학원 전공생 등 사학과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연구실을 이용할 때에는 함께 있는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총무와 총회

큰방과 작은방에 각각 총무를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방 총무는 합동연구실의 시설과 재정을 관리하며, 매 학기 시작 전에 총회를 연다.
작은방 총무는 작은방을 관리하며, 큰방 총무를 보조한다.
총무는 연구실 이용과 상임석 배정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회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계 보고, 상임석 배정, 차기 총무 선출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상임석과 공용석

합동연구실의 좌석은 상임석과 공용석으로 구분한다.
상임석은 내규에 따라 배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공용석은 상임석이 아닌 모든 좌석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공용석을 한 사람이 전용하여 다른 연구실 이용자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상임석 신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 (2) 매 학기 총회에 앞서 신청하고, 총회에서 참석해야 상임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 (3) 휴학을 할 학기에는 상임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없다.

상임석 배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상임석 배정의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비율은, 그 학기 신청자의 비율에 맞춘다.
- (2) 단, 석사 혹은 박사학기생 신청자 합의 한쪽이, 다른 쪽 신청자 합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생은 수업학기생과 논문학기생을 나누지 않고 합쳐 상임석 배정의 비율을 산정한다. *주1
- (3) 상임석은 입학 후 4개 학기마다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4회째 신청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최하 순위로 배정한다.
- (4) 4개 학기 내에 상임석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고학기생일수록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
- (5) 우선순위는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안에서 각기 따로 구분하여 매긴다.
단, 본 항의 (2)에 따라 수업학기와 논문학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정의 신청자를 합쳐 우선순위를 매긴다.
본 항의 (3)에 따른 최하 순위자도 이와 같이 따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020. 2. 개정)
- (6)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순위를 다시 구분해야 할 경우, 고학기생을 우선한다.
- (7)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1~4학기는 석사수업학기생, 5~8학기는 석사논문학기생, 9~12는 박사수업학기생, 13학기 이상은 박사논문학기생으로 간주한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이어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이어서)

상임석 신청·배정·이용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1) 다음 신청자는 배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0순위')가 있다.
가. 과 사무실 조교장 / 나. 과 사무실 분과조교
- (2) 다음 이용자는 상임석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 과 사무실 조교장 / 나. 큰방 총무
- (3) 신청자가 총회에 불참하고 대리인에 위임할 경우, 우선순위를 하나 내린다.
- (4) 상임석 이용자가 휴학하면 그가 지정한 사람 혹은 차순위자가 이용한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용석으로 둔다. 이때 이용횟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학기 1/3 초과시: 휴학한 前이용자가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학기 1/3 이하시: 前이용자의 이용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한다.

상임석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 (1) 배정받은 상임석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차순위자에 상임석을 양도해야 한다.
- (2)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 (3) 합동연구실 청소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한다.

사물함 신청과 배정, 이용

사물함은 매 학기 상임석 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한다.

상임석을 이용하지 않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사물함 이용자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기타

내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내규의 개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세칙의 제·개정 등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 주1

가령,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5:3이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8)이 낮으므로,

상임석 배정의 비율은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학기 = 12:6:8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10. 15:5. 07:6. 76, 반올림하면 10:5:7.

만약,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6:4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10)이 낮지 않으므로,

상임석 배정 비율은 그대로 석사수업:석사논문:박사수업:박사논문 = 12:6:6:4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9. 42:4. 71:4. 71:3. 14, 반올림하면 9:5:5:3.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세칙

2019년 8월 제정

총무의 혜택

큰방 총무는 상임석을 사용하더라도, 회비 납부와 청소 참여의 의무를 면제한다.

상임석 좌석 수

큰방, 작은방을 아울러 합동연구실 상임석의 수는 22석으로 한다. ※주2
상임석 수의 변동은 이후 지양한다.

공용석 지정

공용석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큰방의 개인 자리 3석을 공용석으로 지정한다.

상임석 신청자의 총회 참석

상임석 신청자가 무단으로 총회에 결석·지각할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배정되지 못한 잔여 상임석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회비 납부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25,000원이다. ※주3
사물함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5,000원이다.

연구실 청소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는 한 학기에 적어도 청소 3회 및 대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 주2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석에서 22석으로 늘림.

- 내규 개정에 따라 박사논문학기생이 상임석을 신청하여 배정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

※ 주3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 연구실 기자재 증가 등으로 유지비가 늘었던 점을 감안.

혹시 다음 학기 회보에 짧은 글을 신고 싶으신 분은,
A4 1~3장 내외의 분량으로 어떤 주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yhisto@yonsei.ac.kr / 투고 기한: 2021년 7월 말까지

V

교류회 발표

2020-2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제2회)

2020-2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일시: 2021. 2. 15. (월), 13:00 ~ 15:20

장소: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

· **합동연구실 총회** [사회: 박좌진 (한국현대사, 석사 4)]

13:00 ~ 14:00

· **학술교류회 발표** [사회: 김지훈 (한국현대사, 박사 8)]

14:00 ~ 14:40 발표 1 ... 「4. 19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살펴본 학생 저항 문화

- 4월 혁명 연구반 자료를 중심으로 본 학생운동의 공간적 의미 -」

발표: 이규연 (한국근현대사, 석사 4)

토론: 김예림 (한국근현대사, 석사 2)

14:40 ~ 15:20 발표 2 ... 「**【서평】 위안부 담론의 틀로서 “買春하는 제국” 검토**

(서평도서: 吉見義明, 2019 『買春する帝国: 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岩波書店)

발표: 전혜현 (일본근현대사, 학석연계 학부 4년)

토론: 김보람 (일본근현대사, 석사 5)

발표 1 「4. 19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살펴본 학생 저항 문화」 요지문

이 규 연 (석사 4)

1. 머리말
2. 60년대 4월혁명 학생운동 전개 장소의 공간적 의미와 학생 저항 양상
 - 1) 서울지역 및 지방(대구, 부산 마산) 학생운동
 - (1) 서울지역 학생운동의 주요 전개 장소
 - (2) 지방(대구, 부산, 마산) 학생운동의 주요 전개 장소
3. ‘학교’ - 학생저항운동 미디어와 진행양상을 통해 살펴본 학생운동의 공간적 의미
 - 1) 서울 및 지방 학생운동에 활용된 미디어와 진행양상
 - 2)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운동에 미치는 영향
4. 맺음말

발표요지

4월 혁명은 정부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과 학생의 민주혁명으로 기억된다. 통상 4월 혁명의 주체로 기억되는 대상에는 하층민들과 학생의 신분이라 부르기 애매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4월 혁명 전개 양상과 공간적 의미를 다룸에 있어 ‘학생’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4월 혁명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 외의 운동 참여자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활용한 주 자료는 2020년 상반기 공개된 자료로서 4월 혁명 직후 당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생이었던 김달중, 안병준이 작성한 ‘4월혁명연구반’의 서울과 지방의 「사실조사서」와, 「데모사항조사서」, 「4. 19 목격자의 데모 인근주민(시민)의 조사서」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그 수나 양은 적으나 김달중, 안병준이 185명을 대상으로 60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서울에서 대구, 부산, 마산 순으로 직접 지역을 이동하며 대학생 시위대 뿐 아니라 고교시위대, 인근 목격자, 시위 관련자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양상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생운동의 양상을 학생운동이 전개된 장소와 미디어를 살펴봄으로써 학생 저항문화와 그것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월 혁명 당시 학생들의 저항 문화를 파악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학생 저항문화가 전개되는 장소의 공간적 의미이다. 학생들은 특정 공간을 진행 거점으로 삼아 행진하며 그들의 목적의식과 당위성을 내보이고자 했다. 서울지역과, 지방 학생운동은 특히 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정

부 부처를 데모 계획시에도, 실제 진행시에도 거점으로 삼았다. 관공서를 주요 시위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관공서가 정부를 대변하는 장소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는 참여자에게 학생운동의 목적의식을 낭독이라는 방식을 통해 각인시키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기에 효과적인 장소였다. 내무부나 법무부 등에서 관련 책임자의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 기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해명과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던 것이다.

학생 저항시위는 상징적 장소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모인 시위 참여자들의 연좌데모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집합 열광'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시위대가 시위를 전개한 특정 장소들은 그 곳에 모인 군중들의 '집합 열광' 속에서 학생운동 참여자로 하여금 운동의 목적과 이념을 상기시키고 저항운동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뜻을 지닌 시위 참여자들이 모인 운동 공간에서의 '집합 열광'이 더욱 고조되면 오히려 운동의 주도세력이 공간을 재배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운동의 본질적 의미는 퇴색하고, 선언문의 낭독이나 관계자의 면담 요청 행위는 퍼포먼스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그 결속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 학생운동 기록의 경우, 인구의 유입이 많은 병원, 시장, 백화점 등을 주 진행 코스로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점은 서울이 관공서 등을 주 코스로 계획하고 그 곳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터리 등을 기록한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다. 서울은 학교가 위치하거나 관공서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을 가기 위한 과정 코스로써 위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방은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시위의 장소로써 계획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학생운동 전개 장소로 인구의 유입이 많은 장소가 선택된 것은 학생운동 참여자와 그들을 지켜보는 시민들과 연관이 있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았고, 더욱이 시민들의 호응이나 도움이 더해지면서 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참여자들의 시위 열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도립병원은 3, 15의 영향으로 발생한 마산사건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학생들은 이곳을 시위의 결집장소로 하여 시위를 전개하거나, 이곳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시위대는 병원에 들러 김주열의 시신에 꽃다발을 증정하며 추모를 하거나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제 1차 마산사건을 상기시키는 병원 앞에서의 선언문 낭독의 파급력은 관공서 못지않았을 것이다. 도립병원은 마산 학생들과 시민들을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결집시키고, 김주열로 대변되는 죽음 대한 죄책감이 운동의 동력으로 치환되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은 학교를 시위 진행 코스로 삼았기도 했는데, 타학교에서의 학생운동 전개 양상은 이념과 목적을 선언이나 낭독, 요구 행위를 통해 시위 참여자와 시민들을 동원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학생시위대가 몸소 나서 타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정치 참여자로 동원하였다. 이는 주요 학생운동이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서울보다는 지방의 중·고생의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4월 혁명 당시 학생운동은 대체로 학생회가 그 주축이 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 구성의 짜임에 있어 허술한 면은 있으나, 나름의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비록 학생회가 구성하거나 조직하지 않고 주동학생이 ‘학교’에서 시위의 이념이나 목적을 선언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출발하였지만, 학생들의 유대는 학교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에게 ‘지성인’으로서 ‘지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학생운동은 학교 밖 거리에서도 ‘학교’라는 공간과 정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공간적 정서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배제’와 ‘정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주 자료인 ‘4월 혁명 연구반’ 자료를 통해 학생 저항운동의 양상과 문화를 살펴봄에 있어 운동의 전개 장소와 그 장소가 지니는 공간의 상징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학생운동의 주체인 ‘학생’이 속한 ‘학교’가 교문 밖 거리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의미를 소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4월 혁명의 주체에 학생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운동 공간의 지리적 특성이나 지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큰 한계가 존재함으로 추후 살펴보지 못한 자료들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4. 19 유족회, 『四一九十周年 記念誌』 (사단법인 4. 19 유족회, 1971)
 4. 19 혁명 부상자회·4. 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 19혁명 사진집』 (2000)
 四一九혁명기념사업회, 『四一九革命史』 (만복당, 2019)
 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가 기록한 1960년 4월혁명 : 청년학생의 힘!』 (2020)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間SAI』 9 (2010)
 문상석, 「학도호국단의 경험과 기억 - 탈정치화와 자기정당화」 『담론201』 15-3 (2012)
 박영신, 「운동 문화의 사회학 : 집합 열광의 공간과 '운동 노래」 『사회이론』 27 (2005)
 박윤덕, 「혁명적 군중과 거리의 정치」 『한국서양사연구』 53 (2015)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06 (2014)
 윤선자,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75 (2015)
 이기훈, 「만세현장의 미디어와 상징체계, 3.1운동의 깃발과 선언서 - 판결문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2 (2019)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2009)

주요 활용 사료 (출처 - 연세대학교 박물관)

- 4월혁명연구반, 「사실조사서」 (서울, 지방)
 _____, 「데모사항조사서」 (서울, 지방)
 _____, 「4. 19 목격자의 데모 인근주민(시민)의 조사서」

발표 1 「4. 19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살펴본 학생 저항 문화」에 대한 토론문

김 예 림 (석사 2)

「4. 19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살펴본 학생 저항 문화」는 4월 혁명 연구반 자료를 바탕으로 4월 혁명 학생운동이 전개된 장소의 공간적 의미와 운동에 동원된 미디어 양상을 분석한 글입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 처음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4. 19 학생운동의 양상을 분석하고 서울과 지방의 운동 양상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토론문은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

발표문은 작년 상반기 처음 공개된 4월 혁명 연구반 자료(서울과 지방의 「사실조사서」, 「데모 사항조사서」, 「4. 19 목격자의 데모 인근주민(시민)의 조사서」)를 바탕으로 4. 19 학생운동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후세 학자들을 위해 수집된 자료로, 혁명에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시위 주동자, 부상자 면담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¹

이 자료가 발표문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자료에 대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서 중 발표문 논지의 근거로 사용된 조사서의 작성자는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조사서의 구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며 둘째, 발표문에서 4월 혁명 중 학생 주체의 시위만을 다루고 있는 까닭이 자료상 한계 때문인지 혹은 다른 문제의식 때문인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오픈아카이브와 각주 4를 보면 조사 대상이 학생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를 주로 다룬 까닭은 조사서 작성자의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학생 시위에 대한 답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에서 <표 1>~<표 4>, <표 6>, <표 7>에 소개된 주요 시위 장소 및 사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도 보충 소개를 요청 드립니다. 우선 <표 3>과 <표 4>의 경우, 한 장소에서 사건이 중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책임자 호출을 동시에 요구한 경우) 만약 중복적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분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표 목록에 '기타'가 없는데, 이는 발표자께서 '주요' 진행 코스나 사건, 미디어만을 추려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주요'와 '주요가 아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던지, '기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기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값

1 「4. 19 혁명 - 김달중/안병준 면담 구술기록」, 『오픈아카이브 - 구술아카이브 4. 19혁명』 자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fbclid=IwAR1sFroyAYdZPKw2tHef7nSvoMPnHrqGHFN8er5xs78K9TfdvsxUxj3sW5w>

은 없었는지를 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표 3>, <표 4>의 합계(각각 32건, 15건)과 <표 1>, <표 2>의 합계(각각 56건, 30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기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2. 서울-지방 학생운동의 운동 양상 차이

발표문은 서울과 지방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의 양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표 3>과 <표 4>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학생운동 주요 사건의 차이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선언문, 호소문, 결의문 낭독 및 협서’가 가장 높은 비중(44%)를 차지하고 ‘투석전/파괴’가 가장 낮은 비중(25%)를 차지하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오히려 ‘투석전/파괴’가 가장 높은 비중(60%)을, ‘관공서 고관/책임자 면담, 호출 요구 및 협상’이 가장 낮은 비중(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운동 양상이 상반되는 까닭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 이분법적으로 이를 ‘근대적 행위’, ‘전통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 학생운동에서는 ‘투석전/파괴’ 사건이 비율이 높았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왜 ‘선언문, 호소문, 결의문 낭독 및 연설’의 비율이 낮았을까요? (관공서는 지방에 그 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서울보다 관공서 책임자 호출이 적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대중을 동원하기에 지방에서는 ‘투석전/파괴’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3. 미디어 부재에 대한 해석

발표문은 학생 운동에 동원된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하고 그것의 양상을 시위 공간과 함께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읽으며 미디어가 부재한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7쪽에서 발표문은 ‘의사당에서 미디어 낭독은 그 외 청사들에 비해 수가 적었다’고 하지만, 각 주 12번 참고 표를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비교적 적지만 비율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미디어가 부재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당’ 앞에서 일어난 총 12건의 시위(<표 1> 참고) 중 각 주 12번 참고 표에서는 6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경무청/내무부/중앙청/시청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언문 낭독, 고관 면담 및 호출과 같은 사건이 없는 경우의 시위는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표 6>과 <표 7>에서 주요 활용 미디어를 보여주셨는데, 미디어가 부재했던 시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이는 앞서 드린 ‘1. 자료에 대한 보충 소개 요청’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미디어가 부재했던 시위 공간을 채운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물론 부재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자료에서는 이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은 과연 다루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 ‘학생’이라는 신분의 중요성?

발표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4월 혁명 학생운동의 ‘전개 장소의 공간적 의미’와 ‘미디어’입니다. 특히 3장에서는 ‘학교’ 공간에 집중하여 그 공간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운동의 시작점이고 시위는 학교 공간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으면서 학교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보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의미가 학생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벗어나서도 ‘지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이유는 학교가 만들어 내는 ‘공간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1960년대 ‘학생’이 가지는 ‘특수한 정체성’ 때문이지 아니었을까요? 또한 시위 현장을 학교 공간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학교 내에서와는 또 다른 질서와 규율, 권력이 작동했습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었고, 이를 이끌어 가는 주체들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음을 말하는데 과연 이것을 기존 학교 공간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5. 기타 의견

4월 혁명 연구반 자료는 4.19 학생운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위 양상(장소와 미디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4월 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는지 혹은 기존에 알려진 4월 혁명의 양상과 얼마나 다른 점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수적 의견이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학생 운동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위 미디어(선언서, 플래카드 등) 등이 만들어졌는지, 또한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의 발굴로 4월 혁명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발표 2 『서평』 위안부 담론의 틀로서 “買春하는 제국” 검토」 요지문

전 혜 현 (학석연계 학부 4년)

1. 들어가며: 세 가지 문제의식
2. 용어와 구성
3. 시좌의 시·공간적 확장
4. 위안부 문제의 기저와 그 해결
5. 나오며

발표요지

본고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2019년 작 『買春する帝国: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이하 『매춘하는 제국』)을 비평한다. 요시미 요시아키의 연구에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요시미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아 온 시각이 축적되어 담겨 있다. 또한 정치 외교적 의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의 위안부 담론,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운동, 대중적 위안부 표상 등 위안부 문제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과 관계되는 문제의식이 그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춘하는 제국』 역시 저자가 발전시켜 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평가가 짧은 이 책의 중요한 문제의식 세 가지를 중심으로 비평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 사용의 문제와 그를 바탕으로 한 책의 각장 구성에 대해 본고의 2장에서 검토한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매춘하는 제국』은 買春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책의 각 장 구성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막말부터 1958년까지의 시기를 7개로 구분하여 근대 일본의 성매매의 역사를 ‘매춘하는 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틀이 가지는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시좌의 시공간적 확장에 대해 본고의 3장에서 다룬다. 『매춘하는 제국』은 199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요시미의 성노예론을 확장된 시공간적 무대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매춘하는 제국』은 최근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이 분야의 성과에 의존하면서도, 지역이나 시기,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고자 했다.¹ 특히 요시미의 성노예론과 『매춘하는 제국』에서의 시좌확장이 중첩되는 지점은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공창과 위안부 모두 성노예적 성격을 가진 착취적 제도였다는 점이다. 둘째, 성노예제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이다. 셋째,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에서 드러나는 본국과 식민지, 조차지의 위계 차이와

1 吉見義明, 2019, 『買春する帝国: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巖波書店, p. 2.

상호작용이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의 기저와 그 해결에 대해서 본고의 4장에서 다룬다. 저자는 『매춘하는 제국』의 부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저”라고 붙였는데, 이는 『매춘하는 제국』의 주된 문제의식 역시 오랫동안 그의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매춘하는 제국’의 일대기가 위안부 문제의 기저=출발점에 있다면 위안부 문제의 해결=종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도 『매춘하는 제국』의 이해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요시미 요시아키가 제안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는 군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한편, 본고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다루는 방식도 위안부 문제의 ‘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吉見義明, 2019, 『買春する帝国：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岩波書店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 요시미 요시아키, 1998, 『일본군 군대 위안부』, 소화
- 吉見義明,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 編, 1998, 「「從軍慰安婦」問題と歴史像 上野千鶴子氏に答える」, 『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 요시미 요시아키, 2013,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역사공간
- 吉見義明, 2014, 『(Q&A) 「慰安婦」·強制·性奴隷: あなたの疑問に答えます』, 御茶の水書房
- 토츠카 에츠로, 박홍규 편, 2001,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소나무
- 人見佐知子, 2020, 「書評 吉見義明著『買春する帝国：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部落問題研究：部落問題研究所紀要』 232, 部落問題研究所

발표 2 『서평』 위안부 담론의 틀로서 “買春하는 제국” 검토」에 대한 토론문

김 보 랫 (석사 5)

이 글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買春する帝国: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2019)을 비평한 서평논문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여러 영역에서 진행된 논의들 속에서 발전해 온 요시미 요시아키의 이전 연구들까지 시야에 넣으면서 해당 연구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분석틀(용어 및 구성/사좌의 시공간적 확장) 역시 『買春する帝国』의 강점과 약점을 드러냄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한 토론자에게 있어서 풍부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외한의 질문과 의견을 드림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요시미 요시아키 위안부론의 핵심인 ‘성노예론’의 특징이 『買春する帝国』의 시좌의 확장과 맞물리는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해서 지적해주신 부분(4쪽)은 매우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점들에 대한 본 서평논문의 비판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1) 본 서평논문에서는 “‘사실상 성노예제’와 ‘문자 그대로의 성노예제’의 구분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군위안소와 대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항목은 흐름을 너무 압축시”키고 있으며, “군위안소 운영 시기를 매춘제국의 극한화라고 하여 다른 시기와 구분하고 있다는 것 역시 위안소와 대좌부, 위안부와 공창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기제라고 생각된다”(5쪽)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창제와 (군)위안소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책의 주된 논의전개 전략이지만 그 연속성 속에서 ‘군위안소 운영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買春する帝国』에서는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이 매우 “압축”적이고 부족하다는 점은 토론자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군위안소 운영시기’를 구분하는 것>과 <‘사실상 성노예제’와 ‘문자 그대로의 성노예제’를 구분하는 것>을 아무 매개 없이 연결시킬 때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서평논문 3쪽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買春する帝国』은 ‘국가 및 군’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 그 주된 목표가 있기에 제목에서 드러나듯 ‘제국’ 및 그 권력이 연구의 대상이자 서술하는 역사의 ‘주체’이며, 주로 구사하고 있는 사료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買春하는 주체가 실제로 ‘군위안소’를 운영하는 것을 구분해서 서술하는 것은 이 책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성노예제’와 ‘문자 그대로의 성노예제’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논쟁적이고 담론상 중요한 문제이지만, 『買春する帝国』에서 (설령 “기계적”이라 해도)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저”라는 연구의 출발점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2) 앞의 1)에서 드린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매춘제국의 극한화’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압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사료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여성들(일본인 여성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은 모두 ‘작부’, ‘예기’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로 사료에 표시되는 것은 그 여성들의 상황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즉, 토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시미 요시아키가 말하는 ‘공창제의 연속선상에 놓인 성노예 상태의 여성들’ 중 특히 식민지 여성들의 문제가 명료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소홀하게 지나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노예제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이나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에서 드러나는 본국과 식민지, 조차지의 위계 차이”에 대한 서술에서 특히 식민지 여성들이 전시기 ‘군위안소 체제’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 상황을 법과 조약 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민지적’ 사회 속에서(특히 식민지의 빈곤 또는 ‘업자’ 문제 등과 관련) 제국 내의 ‘위계화된’ 그리고 ‘교차하는’ 억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부족하다는 점(기존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서평논문 7쪽에서 “『매춘하는 제국』에서는 대좌부 등 국내 공창이 국가에 의해 공인(公認)되었다면, 위안소는 공설(公設)이었다고 표현하여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미 요시아키는 “1942년에는 육군성 자체가 위안소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보면, 군위안소 문제에 대한 육군의 태도와 입장은 ‘공인과 은폐’를 넘어서 ‘공설과 은폐’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매춘하는 제국, 196쪽)”라고 하며 ‘공설과 은폐’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군위안소’ 문제에 대한 ‘군과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3. 서평논문 7~8쪽의 “위안부 문제의 ‘끝’”에 대한 물음들에서 드러내주신 문제의식들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요시미 요시아키는 ‘바람직한 방향의 정치적 결착’의 전제로서 “사실의 철저한 구명, 그 사실을 인정하는 상에서의 사죄, 배상, 재발방지조치의 실행(교육, 기념비·기념관의 설치 등)”, 즉 ‘가해국’의 ‘공적기억’에 대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평논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증언’이 ‘역사서술’에서 가지는 위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매춘하는 제국』에서는 방법론적 대안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질문이겠지만) 역시 ‘역사학’의 입장에서 위안부 연구를 하시는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증언’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역사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합동연구실 회보

合研 4

2021년 2월 초판 1쇄

인 쇄 북토리 BOOKTORY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사업부
080-855-8285

제 작 사학과 합동연구실

편집·디자인 사학과 올림편집위원회 편집·디자인팀
博多

발 행 사학과 올림편집위원회

Ullim

